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홍 서 은¹⁾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김 리 진²⁾

전북대학교 아동학과/인간생활과학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 J시의 초등학교 4~6학년 2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SPSS 23.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ersion 3.5.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또래관계기술의 하위요인인 협동/공감 요인은 여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조절방략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수준 요인은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조절방략 전체와 하위요인인 체험적 수준 요인은 4학년이 6학년보다, 인지적 수준 요인은 4학년이 5, 6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조절방략이 갖는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아동이 성장하면서 축적된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방식과 관련된 경험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정서조절방략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아동이 적절한 정서조절방법을 습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또래관계기술,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서조절방략, 조절효과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확장시킨 것임.

1) 전북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수료

2) 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E-mail: ljkim@b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 동물로 불리는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반복한다. 아동은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점차 다양한 관계로 확장되어 나간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맞벌이 경향의 증가, 외동아의 증가, 이른 시기에 경험하는 유아 교육기관 등으로 인해서 아동이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또래관계에서 하는 경험들을 통해 아동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해나간다.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이다(김성희, 2011; 민하영, 이영미, 2012). 또래와 관련된 사회적응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이 추후에 학교부적응, 공격성, 사회·정서적 어려움 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Caldarella & Merrell, 1997), 아동은 또래집단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여겨 또래를 모델링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정옥분, 2006) 다른 사회적 관계에 비해 또래로부터 받는 영향이 더 크다. 종합해보면, 학령기의 또래관계는 아동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고은아, 2017),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래관계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이 중요하다(송영혜, 2012). 특히 아

동의 사회적 기술은 원만하게 또래와 상호작용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김성희, 2011), 또래로부터 수용되기 위해서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핵심적이다(Greener, 2000; Hughes, Robinson, & Moore, 1991). 또한 아동이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때 기술적인 측면이 뒤따라야 하는데(박진재, 이은혜, 2002; 심보숙, 고재홍, 2008), 특히 여러 사회적 상황을 아동이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정교한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고,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pence, 2003). 즉,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상호작용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안지선, 2011; 조경은, 2008).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기술은 ‘또래관계기술’로 명명할 수 있는데, 또래관계기술은 사회적 관계기술에 포함된 사회적 기술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호작용 행동을 의미한다(김리한, 2012; 선영운, 2016). 선행연구들은 또래관계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아동이 또래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긍정적인 또래지위를 획득하여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김희선, 2009; 심보숙, 고재홍, 2008). 또한 Meier, DiPerna와 Oster의 연구(2006)에서는 교사들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인 협력과 자제력을 교실에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적절하게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려면 사회적 기술인 또래관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래관계기술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에 따라 또래관계 기술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기술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고은아, 2017; 김리한, 2012; 김지원, 2009; 안지선, 2011)에서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관계기술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기술의 하위요인이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김리한의 연구(2012)에서만 주도성 및 협동/공감에서 여아가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달리 학년에 따라서는 또래관계기술에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은아, 2017).

한편 아동의 또래관계는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경험하는 사회인 가족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송연주, 2015; 안수영, 이형실, 2009; 전혜련, 이지연, 2014; 조경은, 2008), 가족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을 통해서 아동이 가족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신선미, 2017)은 생애 전반에 걸쳐 또래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사회적 역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박민하, 문재우, 2016), 부모의 양육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아동의 또래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수용적인 양육방식과 통제적인 양육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정윤주, 2004), 그 중 통제적 양육방식은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신선미, 2017).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다시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된다(Barber, 1996).

일관된 규칙으로 아동의 행동을 관리하는 행동적 통제(Barber, 1996)는 자녀의 비행행동을 예방하는 기능적인 양육태도이다(Steinberg, 1990).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자녀의 자기조절을 촉진하고(Aunola & Nurmi, 2005), 자녀에게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하여 자녀의 외현화 문제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Eccles, Early, Fraser, Belansky, & McCarthy, 1997;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반면,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와 정서에 간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육태도로(유정옥, 정문경, 2016), 아동의 행동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심리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를 통제하는 역기능적인 양육방식이다(Barber, 1996).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부모가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제를 하는 경우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arber, Olsen, & Shagle, 1994).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통제시도로(방희성, 이영애, 2018; Barber, 1996),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지나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인 아동들의 적응과 사회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영효, 정주리,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기술 습득을 저해할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연구변인으로 설정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래관계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김수진, 2018; 이영효, 정주

리, 2017; 정미경, 2002)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영효와 정주리의 연구(2017)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및 사회적응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고 있고, 전해련과 이지연의 연구(2014)에서는 부모가 심리적인 통제를 과도하게 할수록 자녀가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형성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또래관계기술을 습득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또래관계기술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부모의 실제 양육방식이나 부모가 직접 보고하는 것을 통해 평가하는 양육방식은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이 부모의 양육방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양육방식보다 아동의 지각과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유양숙, 1995; Grych, Seid, & Fincham, 199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보고가 아닌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김주희, 2014; 박소담, 2020; 안희정, 2012; 이경미, 박주희, 2016; 임다혜, 2020)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소담의 연구(2020)와 임다혜의 연구(2020)에서는 여아에 비해 남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희

정(2012)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 중 ‘애정철회’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희의 연구(2014)와 이경미와 박주희의 연구(2016)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또래관계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조절변인의 탐색이 필요하다. 관련 선행연구들(김양은, 2013; 최정인, 2016)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 아동의 정서조절을 언급하고 있다. 김양은의 연구(2013)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우울정서를 초래하는 위험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최정인의 연구(2016)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볼 때, 아동의 정서조절 관련 변인인 정서조절방략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이 또래와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 적절히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조절은 정서와 관련된 생리적

적 과정이나 정서의 강도, 지속시간을 조절하거나 감정을 회피, 유지 혹은 변경하는 것으로(Eisenberg & Morris, 2002),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필요한 주요 요소이다(최은주, 김춘경, 2011). 정서조절은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으로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Yasmin, 201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주영경, 2010). 또한 아동의 인지적 특성인 정서조절방략(조수현, 이경님, 2010)은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상황에 맞게 정서를 조절하며 또래와 원만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서조절방략이란, 자신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바꾸거나,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획된 행동으로 인지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 및 정서적 체험과 표현을 통해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김소영, 김진숙, 2011; 장정주, 2014).

학령기는 정서조절방략이 정교화 되고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시라, 김지신, 2018). 이 시기의 아동이 습득한 정서조절 방법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감정과 행동으로 정서를 조절하여 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다(김성희, 2011).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을 높인다는 김명진의 연구(2017)와 거부민감성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동이 사용하는 다양하고 높은 정서조절방략이 상쇄시킨다는 김시라와 김지신의 연구(2018), 그리고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는 이영효(2018)와 정주혜(2013)의 연구가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며, 정서조절방략을 기반으로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동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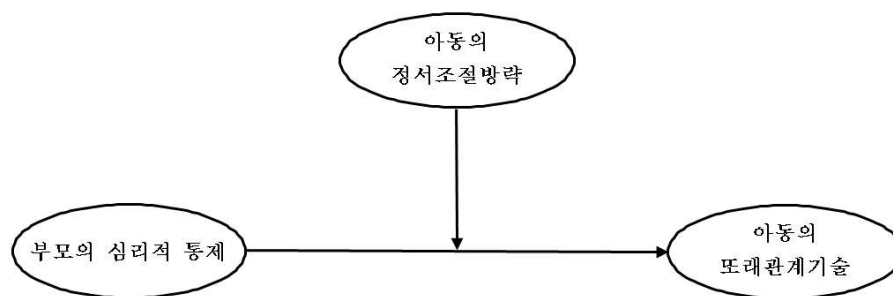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대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아동의 또래관계기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조절방략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J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5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긍정적으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시기 아동들의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한 발달과업이고(김성희, 2011; 김시라, 김지신, 2018; 민하영, 이영미, 2012; 이승은, 남은영, 2011), 이 시기에 습득하는 정서조절방법이 또래관계에서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김명진, 2017; 김성희, 2011; 이영효, 2018; 정주혜, 2013)을 고려할 때, 학령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 기간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02월 03일까지로, 배부한 설문지 중 274부(49.3%)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 = 250)

변인	분류	대상자 수 (%)
성별	남	98(39.2%)
	여	152(60.8%)
학년	4학년	69(27.6%)
	5학년	75(30.0%)
	6학년	105(42.4%)

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미완성된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25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¹⁾.

2. 측정도구

또래관계기술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또래관계기술척도(Peer Relational Skills Scale: PRSS)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에게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는 하위요인인 주도성(9문항)과 협동/공감(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성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행동을 의미하며,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1) 연구에 참여한 각 학교의(연구진행 기관) 담당자가 연구자에게 전달한 내용에서 유추하면, 낮은 회수율의 원인은 COVID-19의 방역지침에 따라 연구대상인 초등학생들이 격주 혹은 격일로 등교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있으면 그 놀이에 끼워달라고 말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협동/공감은 또래를 돕거나 물건을 공유하기,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과 또래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내가 다른 아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경우에 미안하다고 말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고, 주도성 요인은 .83, 협동/공감 요인은 .81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¹⁾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전숙영(2007)이 번안한 자기보고형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자신의 부모가 높은 수준의 심리적인 통제를 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자기표현 제한(3문항), 감정무효화(3문항), 비난(3문항), 죄책감 유발(2문항), 애정철회(3문항), 부적절한 감정기복(2문항)이다. 자기표현 제한은 부모가 아동의 언어적 표현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감정무효

화는 부모가 아동의 감정을 수용하지 않고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비난은 아동의 과거 실수를 언급하거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가족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죄책감 유발은 아동에게 죄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키우시면서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애정철회는 아동에게 애정 및 관심을 철회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부적절한 감정기복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불규칙한 감정적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방략

정서조절방략은 김소영과 김진숙(2011)이 개발한 아동용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서조절 척도는 인지적 수준(6문항), 행동적 수준(6문항), 체험적 수준(6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인지적 수준은 아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합산하여 진행하였다.

동이 정서적 자극이나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수준에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의미하며, ‘나는 기분이 나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역).’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행동적 수준은 아동이 경험한 정서적 자극이나 정보에 대해 행동으로 반응하고 표현하여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의미하며,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는 좋은 기분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시작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체험적 수준은 아동이 정서적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하고 처리하는 수준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장면이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고, 인지적 수준 요인은 .85, 행동적 수준 요인은 .78, 체험적 수준 요인은 .7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IRB File No. JBNU 2020-07-037-001)을 받은 다음, 편의표집된 2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척도의 문항 내용에 대한 연구대상의 이해도와 소요시간 등을 검토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전화로 전라북도 J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연구목적과 연구주제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초등학교 3개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담당선생님께 연구목적과

연구주제, 유의사항, 소요시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다음, 설문지, 동의서와 설명문(아동용 및 보호자용 각각 1부씩)을 배부하였다. 아동들은 유행하고 있는 전염성 질환 COVID-19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자를 대신해 담임 선생님께 연구의 목적과 연구주제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가정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밀봉된 설문지 및 동의서가 모두 회수된 다음 연구자가 기관에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ersion 3.5.3 (Model 1; Hayes, 2017)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및 연구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특성(성별, 학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후에는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넷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1 프로그램에서 Johnson-Neyman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조절변수의 유의한 범위를 구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집단 간 차이 검정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또래관계기술의 하위요인인 협동/공감은 여아($M = 3.38, SD = .44$)가 남아($M = 3.26, SD = .4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00, p < .05$).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M = 1.76, SD = .41$)가 여아($M = 1.65, SD = .43$)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03, p < .05$). 정서조절방략은 하위요인인 인지적 수준은 남아($M = 3.61, SD = .87$)가 여아($M = 3.25, SD = .9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10, p < .01$). 또래관계기술 전체와 하위요인 주도성, 정서조절방략 전체와 하위요인 행동적 수준과 체험적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동의 정서조절방략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표 2.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기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서조절방략의 차이검증

($N = 250$)

	$M(SD)$			t	비교
	전체	남	여		
또래관계기술	2.97(.44)	2.95(.42)	2.98(.45)	-.56	
주도성	2.57(.59)	2.60(.56)	2.55(.61)	.77	
협동/공감	3.33(.44)	3.26(.43)	3.38(.44)	-2.00*	남 < 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1.69(.42)	1.76(.41)	1.65(.43)	2.03*	남 > 여
정서조절방략	3.76(.53)	3.80(.50)	3.73(.54)	1.01	
인지적 수준	3.39(.91)	3.61(.87)	3.25(.92)	3.10**	남 > 여
행동적 수준	3.52(.70)	3.44(.72)	3.58(.69)	-1.48	
체험적 수준	4.36(.64)	4.35(.69)	4.37(.60)	-.24	

* $p < .05$. ** $p < .01$.

표 3. 학년에 따른 또래관계기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서조절방략의 차이 ($N = 250$)

	$M(SD)$			F	비교
	4학년	5학년	6학년		
또래관계기술	2.99(.41)	3.01(.41)	2.93(.47)	.82	
주도성	2.52(.56)	2.62(.60)	2.56(.61)	.52	
협동/공감	3.42(.40)	3.36(.39)	3.26(.48)	2.88	
부모의 심리적 통제	1.67(.40)	1.70(.44)	1.70(.43)	.20	
정서조절방략	3.90(.45) ^b	3.73(.54) ^{ab}	3.69(.55) ^a	3.58*	4학년 > 6학년
인지적 수준	3.68(.78) ^b	3.24(.95) ^a	3.31(.94) ^a	5.16*	4학년 > 5, 6학년
행동적 수준	3.52(.68)	3.55(.66)	3.51(.75)	.07	
체험적 수준	4.49(.47) ^b	4.41(.70) ^{ab}	4.25(.64) ^a	3.31*	4학년 > 6학년

* $p < .05$.

다($F = 3.58, p < .05$). 구체적으로 학년에 따른 정서조절방략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학년($M = 3.90, SD = .45$)이 6학년($M = 3.69, SD = .55$)보다 정서조절방략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인 인지적 수준($F = 5.16, p < .05$)과 체험적 수준($F = 3.31, p < .05$)에서 각각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인지적 수준은 4학년($M = 3.68, SD = .78$)이 5학년($M = 3.24, SD = .95$)과 6학년($M = 3.31, SD = .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적 수준에서는 4학년($M = 4.49, SD = .47$)이 6학년($M = 4.25, SD = .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기술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서조절방략 전체와 하위요인 중 행동적 수준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분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독립표본 t -검정에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미비하고 또래관계기술의 하위요인인 협동/공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에서 아동의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투입한 1단계에서는 종속변인인 또래관계기술에 대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beta = -.21, p < .01$)가 갖는 설명력은 4%

표 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N = 250)

단계	독립변인	또래관계기술					
		B	β	t	R ²	ΔR^2	F
1	부모의 심리적 통제(A)	-.22	-.21	-3.38**	.04	.04	11.40**
2	부모의 심리적 통제(A)	-.03	-.03	-.51	.17	.13	26.50***
	정서조절방략(B)	.34	.41	6.31***			
3	부모의 심리적 통제(A)	-.06	-.06	-.94	.19	.02	20.30***
	정서조절방략(B)	.33	.39	6.17***			
	A×B	-.06	-.15	-2.59*			

* $p < .05$. ** $p < .01$. *** $p < .001$.

로 나타났다. 이어서 모형 2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beta = -.03$)와 조절변인인 정서조절방략($\beta = .41$, $p < .001$)을 투입하였을 때 R^2 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13%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3단계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정서조절방략의 상호작용항($\beta = -.15$, $p < .05$)을 투입한 뒤 R^2 변화량을 살펴보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설명력이 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R^2 변화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조절방략의 상호작용항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서조절방략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각 변인의 평균을 기준으로 ± 1 표준편차 지점에서 고와 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조절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

조절방략이 갖는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해 집단을 나눠 단순기울기의 유의도와 조절변인의 유의한 범위를 Johnson-Neyman 기법을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그림 2 참조). 먼저 조절변인인 정서조절방략의 유의한 범위를 확인한 결과, 정서조절방략의 점수가 상위 24.8%인 4.12점 보다 높아질 경우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의 단순기울기 검정 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조절방략의 수준이 높은 집단($B = -.21$, $t = -2.21$, $p < .05$, 95% CI[-.39, -.02])에서 유의하였고, 평균인 집단($B = -.06$, $t = -.94$)과 낮은 집단($B = .08$, $t = 1.03$)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절방략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조절방략이 평균인 집단과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표 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건값에 따른 회귀계수 검증
($N = 250$)

조절변인		95% CI				
		<i>B</i>	<i>SE</i>	<i>t</i>	LL	UL
정서조절방략	평균 -1SD	.08	.08	1.03*	-.07	.24
	평균	-.06	.07	-.94*	-.19	.07
	평균 +1SD	-.21	.09	-2.21*	-.39	-.02

주. $M = 3.76$; $SD = .53$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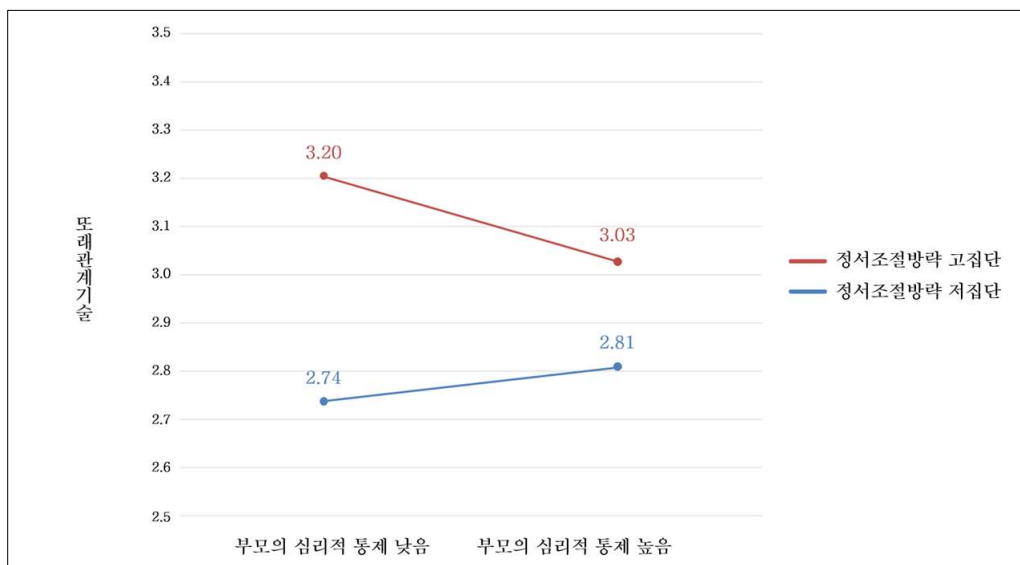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인 값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pm 1SD$ 지점에서 고, 저 집단을 구분한 다음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Aiken & West, 1991), 그 결과는 그림 2¹⁾와 같다. 정서조절방략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낮을 때의 또래관계기술의 점수가 3.20, 높을 때의 점수가 3.03으로 점수 차이가 .17로 나타났고, 정서조절방략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낮을 때의 또래관계기술 점수가 2.74, 높을 때의 점수가 2.81로 차이가 .07로

1) 그래프 참고자료 : Dawson, J. (n.d.). Interpreting

interaction effects. Retrieved March 24, 2021, from <https://www.jeremydawson.co.uk/slopes.htm>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조절방략이 높은 집단에서 더 큰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아동의 또래관계기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정서조절방략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정서조절방략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학년)에 따라, 또래관계기술과 하위요인 중 주도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위요인 중 협동/공감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여아들의 또래관계가 남아들의 또래관계에 비해서 더 친밀하고, 여아들이 또래관계 속에서 또래를 더 많이 돕고 또래들과 더 많이 공유한다는 것(Berndt, 1982)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기술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는 선행연구(고은아, 2017; 김리한, 2012; 양윤란, 오경자, 2005; 이영효, 정주리, 2017)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나가는 행동은 남아와 여아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또래와 서로 협동하고 또래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이를 표현하는 행동은 여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아동의 학년에 따라,

또래관계기술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기술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고은아, 2017)와 일치한다. 이는 학년이 높아져 또래관계를 오래 경험한다고 해서 또래관계기술이 향상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또래관계기술이 낮은 경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평균은 2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김주희, 2014; 박소담, 2020; 이영효, 정주리, 2017; 임다혜, 2020; 장호연, 2016; Barber, 1996)와 일치한다. 이는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부모가 애정철회, 비난, 감정무효화 등과 같은 심리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더 많이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정서조절방략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정서조절방략의 평균과 하위요인 중 인지적 수준과 행동적 수준은 3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체험적 수준은 4점 이

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방략은 인지적 수준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서 정서적인 자극과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수준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방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는 능력이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이길준, 2018)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정서지능 전체와 그 하위요인에 대하여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김리한, 2012)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방략을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개념화하여 정서지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서조절방략의 성차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다양한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정서조절방략과 하위요인 중 인지적 수준과 체험적 수준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iaget가 제시한 인지발달단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신이 여러 행동대안을 비교하여 결정한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미리 고려하는데(Shaffer & Kipp, 2014), 이러한 단계를 거쳐 정서적 자극과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4학년이 5, 6학년 보다 정서적 표현, 반응과 행동에서 다양한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등학교 5, 6학년은 사춘기 초입단계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이주리, 2002), 이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우수진, 김진숙, 2019),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하거나 정서적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행동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조절방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조절방략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낮거나 높은 아동 모두 아동의 정서조절방략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조절효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출생과 동시에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방식 중 하나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축적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경험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의 증진을 저해할 수도 있으나,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다양한 방략을 습득한다면 이것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5, 6학년에 적절하게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아동들의 또래관계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 앞서 제시했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여아에게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좀 더 인지적인 처리 과정

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남아의 경우 또래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또래와 협동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또래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북도 J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을 표집하거나 연구설계 등을 고려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형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대상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보이기 위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부모나 또래, 교사의 보고와 관찰법 등 좀 더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자기보고형 질문지의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을 나눠서 분석하지 않아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구성요소별 영향력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들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여 전반적인 아동의 또래관계를 유추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분석한 것으로,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이나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정도를 명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도 함께 측정하여 연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은아 (2017). 초등학교 고학년의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와 사회불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리한 (2012).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과 놀이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진 (201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또래관계의 질.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 김진숙 (2011). 아동용 정서조절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4), 1097-1108.
<https://doi.org/10.15703/kjc.12.4.201108.1097>
- 김수진 (2018). 학령후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행동적 통제가 또래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라, 김지신 (2018). 학령후기 남녀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7(2), 1-21.
<https://doi.org/10.22839/adp.2018.7.2.1>
- 김양은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우

- 울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희 (2014).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원 (2009).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선 (2009). 저소득층 아동이 지각한 이웃특성과 주양육자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이영미 (2012).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139-154.
- 박민하, 문재우 (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2), 131-152.
- 박소담 (2020).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또래비교행위 및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재, 이은혜 (2002).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유아교육연구, 22(2), 83-110.
- 방희성, 이영애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령기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1(2), 191-208.
<https://doi.org/10.17641/KAPT.21.2.1>
- 선영운 (2016). 아동의 모애착, 또래관계기술,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3), 49-80.
<https://doi.org/10.15753/aje.2016.09.17.3.49>
- 송연주 (2015). 초등학생의 ADHD 증상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돌봄과 교사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203-229.
- 송영혜 (2012). 또래관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신선미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보숙, 고재홍 (2008). 부모-아동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인문논총, 22, 133-163.
- 안수영, 이형실 (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3), 163-176.
- 안지선 (2011).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자기분화와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희정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 수치심 및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윤란, 오경자 (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61-971.
- 우수진, 김진숙 (2019).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정서조절능력 및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6(12), 227-253.

- <https://doi.org/10.21509/KJYS.2019.12.26.12.227>
 유양숙 (1995).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인지양식과 정서대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옥, 정문경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0), 73-95.
<https://doi.org/10.21509/KJYS.2016.10.23.10.73>
- 이경미, 박주희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4), 31-46.
<https://doi.org/10.5723/kjcs.2016.37.4.31>
- 이길준 (2018).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의 질 및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은, 남은영 (2011). 부모의 공감, 아동의 또래관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41-56.
- 이영호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정주리 (2017).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39(2), 85-101.
- 이주리 (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65-78.
- 임다혜 (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주 (2014).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정서조절방략 및 공감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429-449.
- 장호연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80.
- 전혜련, 이지연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2), 5-18.
- 정미경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윤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정주혜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은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규칙 및 아동의 내외통제성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현, 이경님 (201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방략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 Research, 48(5), 61-72.
<https://doi.org/10.6115/khea.2010.48.5.061>
- 주영경 (2010).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주, 김춘경 (2011).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을 강화하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209-234.
- 최정인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Aunola, K., & Nurmi, J.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5.00840.x>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https://doi.org/10.2307/1131780>
- Barber, B., Olsen, J., & Shagle, S.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https://doi.org/10.2307/113130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6), 1447-1460.
<https://doi.org/10.2307/1130071>
- Caldarella, P., & Merrell, K. W. (1997). Common dimensions of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taxonomy of positive behaviors. *School Psychology Review*, 26(2), 264-278.
<https://doi.org/10.1080/02796015.1997.12085865>
- Eccles, J. S., Early, D., Fraser, K., Belansky, E., & McCarthy, K. (1997). The relation of connection, regulation, and support for autonomy to adolescents'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263-286.
<https://doi.org/10.1177/0743554897122007>
- Eisenberg, N., & Morris, A. S. (2002). Children's emotion-related regulation. In R. V. Kail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0 (pp. 189-229). Academic Press.
- Greener, S. H. (2000). Peer assessment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ur. *Journal of Moral Education*, 29(1), 47-60.
<https://doi.org/10.1080/030572400102925>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3), 558-57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2.tb01>

- 646.x
- Hayes, A.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 Hughes, J. N., Robinson, M. S., & Moore, L. A. (1991). Children's attributions for peers' positive behaviors: Social status differenc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6), 645-657. <https://doi.org/10.1007/bf00918904>
- Meier, C., DiPerna, J., & Oster, M. (2006). Importance of social skills in the elementary grades.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29(3), 409-419.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https://doi.org/10.1111/1467-8624.00298>
- Shaffer, D. R., & Kipp, K. (2014). 발달심리학. 송길연, 이지연, 장유경, 정윤경(역). 서울: 박영story. (원본 발간일, 1999)
- Spence, S. H. (2003). Social skills train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ory, evidence and practice.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8(2), 84-96. <https://doi.org/10.1111/1475-3588.00051>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Harvard University Press.
- Yasmin, M. (2012). Learning & development: Emotional literacy-feeling fine. *Nursery World Select*, 2012(5), 18-19. <https://doi.org/10.12968/nuwa.2012.25.5.1097046>

1 차원고접수 : 2021. 07. 08.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6.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al Skills

Hong, Seo-eun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im, Leejin

Dept. of Child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 relation to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25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 city, Jeonbuk, participated in the study. SPSS 23.0 and PROCESS Macro Model 1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ly cooperation/sympathy, a sub-factor of peer relationship skills, differed by gend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ades and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sulted in gender differences, but there were no grade difference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differed in both gender and grade. Second,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have been shown to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Therefore, the study is meaningful in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 relation to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Also, the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peer relationship skills by utilizing emotional control strategies.

Keywords: peer relationship skill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moderating effect